

2007. 8. 20 제173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8. 20 제173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차세대 전자정부 포털 구축

도시경영·경제

1. 레저관광 및 비즈니스관광 동시 성장 (브라질 상파울루市)
2. 중점전략 프로젝트 지원 (도쿄)
3. 인적자원 양성정책 '스킬 보고서' 발표 (영국)

복지·문화

4. '행복한 런던시민 만들기' 사업 추진 (런던)
5. '2007 베를린 통합방안' 발표 (베를린)
6. 노인에게 생활비 지원 (파리)
7. 문화 분야에 투자 확대 (베를린)
8.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개설 (도쿄都 분쿄區)
9. '사회공헌형 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도쿄)

목 차

도시환경

10. '먹고 즐기는 정원' 사업 지원 (런던)
11. 자원 재활용 웹사이트 운영 (캘리포니아주 나파市)
12.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평가시스템 의무화 (파리)
13. 자체 이산화탄소 저감목표 달성 예상 (베를린)
14. 대규모 태양전력사업 실시 (베를린)
15. '공개공지 녹지 만들기 지침' 발표 (도쿄)
16. 수원지 부근에 풍력발전기 설치 (북경)

도시교통

17. 자전거 대여서비스 실시 (파리)
18. 주차장에 노인 전용 주차공간 의무화 추진 (브라질 상파울루市)
19. 도크랜드 경전철의 친환경성 발표 (런던)
20. '안전한 건널목 만들기' 프로그램 실시 (베를린)

도시계획·건설·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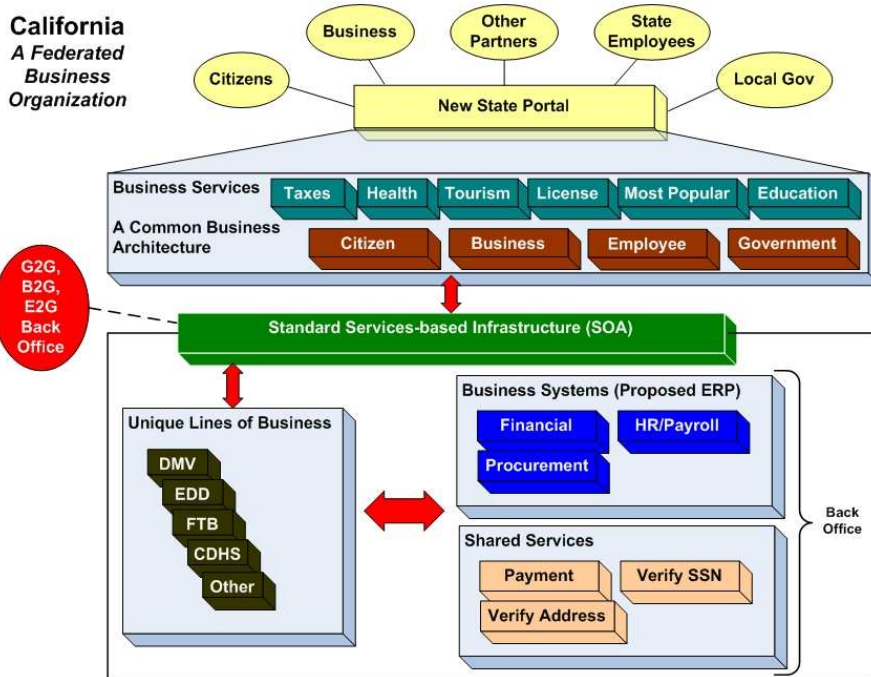
21. 경관계획 수립 (도쿄)
22. 친환경 건물 신축 시 공사허가 처리기간 단축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市)
23. '런던 경관관리 방향' 발간 (런던)
24. 표지판과 경계물이 안전한 거리 조성에 부정적 영향 (영국)
25. 주택 마스터플랜 수립 (도쿄)

[벤치마킹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차세대 전자정부 포털 구축

<주요 내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California In-Touch’(www.cio.ca.gov)라는 정보기술 전략계획(California State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에 의거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 포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2007년 1월에州政府 홈페이지를 재설계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계획 중이며,州政府 내 기관 홈페이지 개선은 2007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사이트맵 프로토콜이라는 개방형 표준기술을 활용해 10만 개에 달하는州政府 웹페이지를 구글이나 MSN, 야후 등 민간 포털의 검색엔진에 완전히 노출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했음.
 - 캘리포니아주 정부 포털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 개발의 목표는, 어느 정부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느 정부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시민이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단위 정부기관 간의 정보 및 서비스 공유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州政府 포털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단위 정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기술적 요소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나 연합 포털(Federated Portal) 등 협업 중심 분산 컴퓨팅 기술이 고려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 정부 포털의 통합 아키텍처

○ 캘리포니아주는 시민과 기업,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주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가치, 비용 대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혁을 달성하고자 2005년 11월에 정보기술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2010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함.

-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컴퓨팅 하부구조 구축,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와 고정형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전사적 통합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 구축, 고객 중심의 행정 프로세스 개선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해설 및 평가>

-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차세대 전자정부 포털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고객 중심의 총체적인 개혁을 목표로 함.
·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추가하는 수준을 벗어나 총체적인 개혁을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장성이 뛰어난 서비스 지향 아

키텍처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표준화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시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콘텐츠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나아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초점을 둬.
- 웹 서비스라는 분산형 웹 컴포넌트 표준을 활용해 정보의 무결성(無缺性)과 서비스의 재활용성을 높이며, 상황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이러한 견지에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하나의 큰 축으로 고려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통합 홈페이지(www.seoul.go.kr) 외에도 실국/본부 홈페이지 및 각종 정보 제공용 홈페이지 등 180여 개의 전문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활용성을 높일 목적으로 2007년 6월에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음.
-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를 새로 구성하고 정보체계를 개선했으며, 개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이서울’ 서비스를 추가하고 시민 참여를 위해 RSS 등 웹 2.0 기술을 도입함. 2008년 말을 목표로 검색 디렉토리 정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즉,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재 내부 윤리행정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관리시스템(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할 계획이고, 다산 프로젝트를 통해 대(對)시민 서비스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캘리포니아의 사례처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경우 웹 컴포넌트의 재활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정부기관 간의 경계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는, 서울시도 서울시 전자정부와 일선 구청의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사실상 의미론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높은 비용과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하향식 접근보다는 핵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구현전략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u-Seoul 마스터 플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2000년대 들어 무계획적으로 난립하게 된 포털의 혼재로 인한 웹 스프롤(Web Sprawl) 현상으로 포털 관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1. 레저관광 및 비즈니스관광 동시 성장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다양한 행사 개최와 관광상품 할인 제도로 레저관광 분야와 비즈니스관광 분야가 동시에 성장하는 효과를 냈다고 밝힘.
 - 2007년 1~5월까지 숙박, 여행패키지, 행사를 통한 세수입은 2006년 동기(同期) 대비 18% 증가해 4550만 헤알(약 200억 원)에 달함.
 - 1~5월 상파울루를 방문한 관광객 가운데 대규모 비즈니스 관광객 비율은 76%였음.
 - 리우데자네이루市의 '예수상'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됐지만 상파울루市가 관광산업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약 900만 명이 상파울루市를 방문해 총 13억 달러(약 1212억 원)를 지출함.

(www.fiscosoft.com.br/main_radar_fiscosoft.php?PID=3002453)

(www.atarde.com.br/brasil/noticia.jsf?id=768555)

2. 중점전략 프로젝트 지원 (도쿄)

- 도쿄都는 새로운 사업 창출을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쿄都 중점전략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진행 관리와 사업화 지원을 맡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기관을 모집하기로 함.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기관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작업에 참여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함. 대상 사업자에게 경영, 제품 기획, 판로 개척,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언과 지원도 맡게 됨.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기관에는 위탁료로 950만 엔(약 7125만 원)까지 지급됨.
 - 都는 2007년에 건강, 환경, 위기관리 등 대도시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 개발 프로젝트를 1건 정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07/07/22h7o100.htm)

3. 인적자원 양성정책 ‘스킬 보고서’ 발표 (영국)

○ 영국 대학·기술·혁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는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성인교육 정책인 ‘스킬 보고서’(Skill Accounts)를 발표함.

- 성인 학습자가 학습카드에 학습과정을 기록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등록하는 데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음. 2007년 8월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

- 이 정책의 토대가 된 ‘월드 클래스 스킬’(World Class Skills)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성인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학습을 통해 얻은 기술과 자격은 일자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672244/Skills-accounts-pilot-adults)

복지 · 문화

4. ‘행복한 런던시민 만들기’ 사업 추진 (런던)

○ 런던시는 복권기금 1400만 파운드(약 264억원)를 유치해 런던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임.

- 런던시 민관협력위원회인 ‘런던건강위원회’(London Health Commission)가 사업의 총 책임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단체가 교육 및 홍보, 자료 조사, 행복지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

·총 7개 민간단체에서 정신건강, 운동과 지속가능성, 문화를 통한 행복 등을 주제로 개별 사업을 벌임.

-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건강한 런던(Well London) 전략사업'은 저소득층 시민 8만 명을 대상으로 5년 간 집중적으로 행복 만들기 사업을 벌일 예정임.
-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음식과 운동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인 'Peabody Trust'가 담당함.
- 저소득층 지역인 고층 공동주택 단지에서 식용작물 재배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영양사가 독신 남성을 대상으로 인스턴트 음식을 자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법을 교육할 예정임.

(www.thisislondon.co.uk/news/article-23404825-details/%C2%A314m+Lotto+cash+to+teach+Londoners+how+to+be+happier/article.do)

5. '2007 베를린 통합방안' 발표 (베를린)

- 베를린市 통합·노동·사회부는 2007년 7월 3일 장기계획으로서 새로운 통합 개념과 방안을 발표함.
- 베를린市가 2007년 추진할 사회정책의 본보기로서의 통합정책의 개념은 '다양성을 장려하고 강화하자.'임.
- 해당 부처는 곧 추진할 예정인 45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통합 개념과 통합 과정 중에 평가할 수 있는 지표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시함.
- 독일 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베를린이 독일에서는 물론 유럽연합에서도 통합 트렌드를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됨.
- 통합·노동·사회부 장관은 "통합 모니터링의 도움으로 베를린 통합에 대한 현재 상황과 발전 과정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목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행정수단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평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7/03/81236/index.html)

6. 노인에게 생활비 지원 (파리)

- 파리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은퇴 노인의 집’에 있는 노인에게 ‘독립생활 지원’(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정책을 실시함.
 - 이는, 각 구청에서 병원비 등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기존의 노인 지원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주거비 등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기존 정책은 ‘은퇴 노인의 집’ 거주 여부 등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데 반해, 이번 정책은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춰 생활비를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즉, 60세 이상 노인은 자동으로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A Paris 23호, 2007년 여름호)

한줄 뉴스

<브라질>

- 상파울루주, 불법 가솔린 매매로 적발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유통·운송·구매자에게도 벌금 부과 등 처벌 강화
- 리우데자네이루주, 내륙 도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요리 관광 프로그램’ 도입 추진

7. 문화 분야에 투자 확대 (베를린)

- 베를린시 문화부 차관은 2007년 7월 3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2011년까지의 예산계획안이 베를린 문화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자평함.
 - 2008년과 2009년에 베를린시 자체 문화시설에 4000만 유로(약 4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함. 2011년까지 1억 3400만 유로(약 1608억 원)에 달하게 됨. 국립 오페라극장 등 각종 문화시설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로 산정돼 향후 4년 동안 지원금액은 약 300만 유로(약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부 차관은 “의회의 결정은 문화야말로 도시의 미래역량임을 밝힌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전시장과 극장, 무대, 기념물, 정원 등의 문화시설 개보수 계획을 소개함.
 - 이러한 재정 지원은 공립뿐 아니라 사립 문화시설인 베를린 앙상블, 프리드리히 궁전 등도 포함되는 것이며, 시의회에서는 별도 지원금액을 책정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7/03/82032/index.html)

8.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개설 (도쿄都 분쿄區)

- 도쿄都 분쿄區는 신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분쿄區 장애인 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함.
 - 취업에 앞서 취업능력을 지닌 장애인을 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을 실시함.
 - 區 내의 실업자 구제기관과 제휴해 장애인이 작업시설에서 1~2주가량 실습하도록 해 장애인의 현재 능력을 파악하고, 직업 컨설팅업체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을 알선하고 코디네이터가 면접에 동행하는 등 취업할 때까지 지원함.
 -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 상담도 병행하고 있음.
 - 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간단한 컴퓨터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www.city.bunkyo.lg.jp/_6920.html)

9. ‘사회공헌형 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도쿄)

- 성년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가 적절한 후견인을 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도쿄都는 사회공헌 정신에 입각해 후견업무 하려는 도민을 ‘사회공헌형 후견인’으로 양성하는 기초강습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실시하기로 함.
 - 기초강습은 5일간 실시되며, 강습내용은 제도에 관한 법적 지식, 권리 옹호 등임.
 - 사회공헌형 후견인 기초강습 과정을 수료하면 都가 제시하는 구·시·정·촌의 추진기관에 등록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각자의 적성에 맞춰 실제 후견업무를 맡게 됨.
 - 사회공헌형 후견인의 주요 직무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 악질 방문판매로부터의 보호 등임.

- 성년 후견제도 신청자는 2000년부터 증가해 2006년에는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함. 앞으로도 사회공헌형 후견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www.metro.tokyo.jp/INET/BOSHU/2007/07/22h7n700.htm)

한줄 뉴스

<도쿄>

- 각 區에서 都의 ‘종합 주차대책 매뉴얼’을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대책 기본방침 재검토
- 25~34세의 프리타(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사는 사람)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자를 위해 인터넷으로 3개월간 100시간 정도의 무료 직업훈련 실시

도 시 환 경

10. ‘먹고 즐기는 정원’ 사업 지원 (런던)

- 런던시내 쌈지공원에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 수확할 수 있는 식용작물 위주의 ‘먹고 즐기는 정원’(edible garden)이 조성됨.
-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예술가 Fritz Haeg의 ‘먹고 즐기는 집’ 시리즈를 런던시내에 적용해 본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 사업에, 테이트 모던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이디어와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구청과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함.
- ‘세계 도시 전시회’를 기획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런던 동부 템스강변에 있는 서덕구청(Southwark Council)이 공공 쌈지공원

용지를 제공하고 사업 후원을 맡았으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인 'Bankside Open Spaces Trust'가 직접 공원 조성에 참여함.

- 재원 조달은 해당지역 재개발 관련 협의체인 'Better Bankside'가 맡음.
- 지역주민은 과일, 채소, 허브 등을 심고 작물 관리와 수확을 담당함.

- 테이트 모던 미술관 전시회 기간 동안 정원 만들기 과정을 담은 동영상과 정원계획도 등이 대중에게 공개됨.

(www.tate.org.uk/modern)

(www.fritzhaeg.com/garden/initiatives/ediblestates/london.html)

(www.thelondonpaper.com/cs/Satellite/london/videos/article/1157147976607?packedargs=suffix=ArticleController)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쌈지공원 녹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주민이 역할을 잘 분담해 명소를 만들었다는 점과 미술관에서 처음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술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기사항이라 할 수 있음.
- 관상 위주로 식재하지 않고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유실수와 채소, 허브 위주로 식재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물론 주민 이용률도 높일 수 있었음.
-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에서 녹화 가능한 자투리땅을 제공하고 민간단체와 주민이 협력해 녹화·관리하는 '우리동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시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이용하는 방안과 예술가와 연계해 예술적인 면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함.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11. 자원 재활용 웹사이트 운영 (캘리포니아주 나파市)

- 캘리포니아주 나파市는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나파맥스 (NapaMax)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끼리 중고물품을 교환하거나 시청에 폐품 처리를 의뢰할 수 있음.
 -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는 건설자재, 멜감, 유리, 가구 등 매우 다양함.
 - 버리거나 매립하려는 물품을 나파맥스 웹사이트에 올려 다른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원 재활용에 정보기술을 적용한 나파맥스 웹사이트가 앞으로 재활용과 재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市는 기대하고 있음.

(www.napamax.org)

12.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평가시스템 의무화 (파리)

- 2006년 11월부터 실시된 ‘에너지 사용 진단’(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시스템이 2007년 7월부터 파리 수도권 주택에 의무화됨.
 - 이 시스템은 전기제품이나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에너지 소비 등 두 가지 정보를 돈으로 평가해 나타내 줌.
 - 주택을 팔거나 임대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해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사용 진단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나 에너지 정보센터(EIE: Les Espaces Info Energie), 에너지문제 전문가 등이 진단양식에 따라 실시함.

(www.paris.fr/portail/Urbanisme/Portal.lut?page_id=5693&document_type_id=5&document_id=31383&portlet_id=12206)

13. 자체 이산화탄소 저감목표 달성 예상 (베를린)

-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통계청은, 베를린시가 2004년에 이미 이산화탄소를 1990년 대비 23% 감축했기 때문에 자체 이산화탄소 저감목표인 1990년 대비 2010년 25% 감축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베를린시는 '2008 정부 에너지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당초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를 수정할지를 결정하고 기후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 에너지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기후보호 자문단이 구성됨. 기후보호정책과 기후관리에 종사하는 학자, 에너지회사 대표 등이 포함되는 자문단은 2007년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함.
 - 자문은 각종 공식 포럼에 수반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연대가 집중적으로 형성됨.
- 베를린시는 새로 설치되는 자문단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베를린시 기후보호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7/05/81396/index.html)

14. 대규모 태양전력사업 실시 (베를린)

- 2007년 7월 10일 베를린시에서 6개 區의 24개 학교건물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전력 프로젝트가 제안돼 추진 중임.
- 시 환경부는 기후친화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 만족해하고, 더 많은 區에서 설치하기를 희망함.
- 베를린시는 그동안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지금까지 13개 태양광전지가 12개 지붕에 설치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7/10/81657/index.html)

15. ‘공개공지 녹지 만들기 지침’ 발표 (도쿄)

- 도쿄都是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한 ‘공개공지 녹지 만들기 지침’을 발표함.
 - 기존의 공개공지 녹지계획은 건축계획이 정해진 후에야 협의·조정됐기 때문에 공개공지 상호간의 녹지가 연결되지 않았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에게 ‘녹지 데이터 맵’과 ‘공개공지 녹지 만들기 지침’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개선돼 공개공지의 가치가 한층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개발된 부지 사이에 벽이 있어 녹지가 연속되지 않음.



인접한 개발 부지에 공개공지가 있어 녹지 네트워크가 형성됨.



수목이 가장자리에만 배치돼 녹지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형성되지 않음.



적절한 수목 배치로 녹지 네트워크의 거점이 형성됨,

(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19/topi011.htm)

16. 수원지 부근에 풍력발전기 설치 (북경)

○ 북경市 서북단 공공수원지 남쪽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매년 약 1억kW 용량의 친환경 에너지를 10만 가구에 공급할 예정임.

- 이를 통해 매년 석탄 5만 톤을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0만 톤과 이산화황 배출량 782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1기 공사는 5000kW급으로 350톤가량의 풍력발전기를 33대 설치해 연간 1억kW를 공급하게 되며, 2010년까지 10만kW급의 2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 북경市 에너지경제운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북경市가 풍력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첫 프로젝트로 올림픽 개최와 함께 결정된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임.

·33대의 풍력발전기가 모두 완공되면 고속도로가 발전기지를 가로지르는 형태가 됨. 고속도로 양쪽에서 가동되는 풍력발전기의 흰색 바람개비가 장관을 이뤄 관광코스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www.bjd.com.cn/bjxw/bjsz/ssxw/200707/t20070723_319608.htm)

한줄 뉴스

<영국>

- 런던市, 2012년 런던올림픽을 위해 벨로파크 (Velo Park)에 6000석 규모의 실내 사이클 경기장인 벨로드롬 (Velodrome) 조성

- 보건복지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 검토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에 약 500만 원의 벌금 부과안도 검토



17. 자전거 대여서비스 실시 (파리)

- 파리시의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플랜이 2007년 7월 15일부터 ‘벨리브’(Velib: 자전거라는 뜻의 ‘Velo’와 자유라는 뜻의 ‘libre’의 조어)라는 이름으로 파리 시내에 전면 실시됨.
 - ‘자동차 없는 거리’ 계획의 하나로, 각 지역에 자전거 정류장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대여해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함.
 - 각 자전거 정류장에는 근처의 다른 자전거 정류장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이용한 자전거를 근처의 다른 정류장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마다 이용기록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어 누가 언제 어느 정류장에서 어느 정류장까지 이용했는지를 알 수 있음.
 - 2007년 7월 15일부터 1만 648대의 자전거가 약 750개의 자전거 정류장에 비치됐으며, 2007년 말에는 두 배가 늘어난 1451개의 정류장에 약 2만 600대의 자전거가 비치될 예정임.
 - 벨리브 서비스는 1년 이용료 29유로(약 3만 6800원)와 보증금 150유로(약 19만 원)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음.
 - 처음 30분은 무료로 탈 수 있음.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자전거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시간을 30분 추가할 때 1유로(약 1270원)를, 다시 30분 추가 이용 시에는 2유로(약 2540원)를 내고 세 번째 추가 이용 시에는 4유로(약 5080원)를 내야 함.
 - 1년 이용자는 29유로(약 3만 6800원)에서 이용 요금이 차감되고, 단기 이용자는 카드로 결제함.
 - 자전거 정류장에 자전거를 놓을 자리가 없을 때에는 다른 정류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때 초과되는 15분은 추가 이용금액을 내지 않아도 됨.
 - 1000여 군데의 벨리브 정류장은 신용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파리 시내 약 300m마다 정류장이 있음.

- 자전거 무게는 약 22kg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속도 제한이 있어 안전함.



(www.paris.fr/portail/viewmultimediacdocument?multimediacdocument-id=29728)

>>> 전문가 검토의견

- 파리가 도입한 공공 자전거 대여 시스템(Velib)은 그동안 파리가 자전거 주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파리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자전거 도로 정비에 있어서도 차도와 거의 동등하게 배정해 설계하는 수준임.
- Velib는 최근 유럽 각 도시에서 앞다퉈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EST: Environment Sustainable Transport)와 맥을 같이 함.
 - 탈자동차 정책적 측면 외에도 파리에서는 반경 5km 내외는 자전거가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음.
- 서울시도 최근 공공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레저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교통 차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음.
 - 시스템 도입에 앞서 오랜 기간 자동차와 대등한,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을 구축해 온 파리 자전거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전거 대여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

/이광훈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kwlee@sdi.re.kr)

18. 주차장에 노인 전용 주차공간 의무화 추진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공공 및 사립 주차장의 5%를 65세 이상 노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의무화할 계획임. 관련 법안은 2007년 11월까지 확정됨.
 - 市의 공공 및 사립 주차공간은 90만 개인데 앞으로 4만 5000개 공간이 노인 전용으로 바뀔.
 - 市가 2007년 11월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면 주차장 운영업체는 2개월 내에 규정 준수를 위한 준비를 끝내야 함.
 - 노인 전용 주차공간은 주차장 입구 쪽에 배치해야 하며, 노인 전용 표시를 해야 함.
 -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하루 100헤알(약 4만 3000원)의 벌금이 부과됨.
 - 한편, 상파울루 주차장 운영업체조합은 노인 전용 주차법에는 동의하지만 5%는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냄.

(oglobo.globo.com/sp/transito/mat/2007/07/14/296783673.asp)

19. 도크랜드 경전철의 친환경성 발표 (런던)

- 런던 교통공사는 런던의 시티공항까지 도크랜드 경전철(DLR: Dockland Light Railway)을 연장 운행함에 따라 156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함.
 - 2005년 12월부터 런던 시내 동쪽에 위치한 시티공항까지 운행하는 도크랜드 경전철은 기존의 택시 이용건수(약 12만 건)와 자가용 운행횟수(약 28만 8000건)를 대체했으며, 영국 내 도심-공항 연결 교통편 중 가장 높은 승객 점유율(49%)을 기록함.

- 도크랜드 경전철은 도심 금융가인 뱅크역에서 출발해 교통이 불편한 재개발 지역인 런던 동부지역을 지나 시티공항으로 연결돼 있어, 지역 재개발 사업과 공항 교통편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공항 연결선이 연장되면서 인접구간 이용자가 2배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이용률이 급증함.
- 도크랜드 경전철은 런던 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상과 지하구간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행하며, 최근 연간 최고 승객 수 6000만 명을 기록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5486.aspx)

한줄 뉴스

<북경>

- 2007년에 200대의 신형 2층버스를 도입해 시내 주요도로에서 운행할 예정
- 북경 경제기술개발구와 중관촌 과학기술원구의 양대 산업단지 성장 가속화로 북경市 경제성장 및 첨단산업화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 거둬
- 市 민원실, 2005년부터 인터넷 민원제도를 실시한 결과 약 10만 건의 민원 해결

20. '안전한 건널목 만들기' 프로그램 실시 (베를린)

- 베를린市가 '도로에서의 안전'이라는 안전한 건널목 만들기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건널목에서의 행동요령과 규칙을 알려줌.
 - 특히 학교 근처 도로에서의 안전을 주로 다루며, 학교 근처 건널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함. 관련 책자는 시청에서 얻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市는 건널목에서의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이후 140개의 새로운 건널목을 추가로 만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8/nachricht2745.html)

21. 경관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是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쿄 재생을 위한 ‘도쿄都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에 근거하는 제반 제도 및 관련 시책과 都의 독자적인 방침을 제시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함.
 - 都 전체를 경관 기본축(경관의 주요 골격이 되는 자연이나 지역), 경관형성 특별지구(문화재, 공원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수변지역), 일반지역 등 세 구역으로 분류해 각 구역마다 경관 형성의 목표와 방침을 정함.
 - 높이나 면적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사업 착수 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관 형성에 중요한 공공시설은 경관 중요 공공시설로 지정해 정비나 관리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함.
 -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질 높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시 사전협의 제도’, ‘공공사업을 통한 경관 형성’, ‘역사 건축물의 보존 등을 통한 경관 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시책을 都의 독자적인 방침으로 제시함.

(www.koho.metro.tokyo.jp/koho/2007/05/keikan.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是 1994년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종합적·계획적 경관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1997년 12월 도쿄都 경관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2004년 경관녹삼법(景觀緑三法)이 시행되자 과거 수립한 경관계획과 경관조례 등을 경관녹삼법에 근거해 새롭게 재정비하거나 재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에는 경관녹삼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다양한 경관행정을 시행하고 있음.
 - 시나가와區 텐노즈 지구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수변에 방치된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가 하면 수변 레스토랑 등을 개점해 매력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 또한 수변 창고 등을 재건축해 업무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지역 활성화도 꾀하고 있음.

- 서울시도 2007년 하반기 경관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1990년대 이후 수립된 각종 경관계획 등을 아우르고 경관조례와 경관협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경관행정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주민참여 경관행정 및 경관형성사업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분야 간 파트너십 구축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목정훈 도시계획부 연구위원(jhmok@sdi.re.kr)

22. 친환경 건물 신축 시 공사허가 처리기간 단축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市)

-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市 행정집행관은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함.
 - 제출안에 따르면, 산마테오市 지역에서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건설하려는 개발업자는 기존에 비해 2배 정도는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예정임.
 - 기존에는 거주용이나 상업용 빌딩의 허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6~7주 정도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건물의 경우 약 3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산마테오市 행정집행관은 더 많은 사람이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며, 지금은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시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함.
 - 환경친화적인 건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도 제안함. 이 체크리스트에는 건물의 설계, 시공,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자원 및 방법의 이용 여부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함.
 -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

(www.paloaltodailynews.com/article/2007-7-19-0719-smc-green)

23. ‘런던 경관관리 방향’ 발간 (런던)

○ 런던市는 런던의 주요 명소를 보전·운영하기 위한 계획지침의 부록편(SPG: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인 ‘런던 경관관리 방향’(London View Management Framework)을 발간함.

- 부록편은 런던市 기본계획인 ‘런던계획’(London Plan)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도시 설계의 전략적 측면을 강조해 추가 작성된 것임.

·수도권의 주택수요 증가 등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사업 허가 가능성은 열어놓고 역사적 명소를 적절히 보전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및 관광수입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됨.

- 보호대상으로 정부 지정 명소 11개소가 선정됐으며, 템스강 남측에서 바라보는 런던탑 풍경이 새로 추가됨.

·보호대상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부록편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진행해야 함.

·17개 강변 경관과 파노라마 경관지역의 보전 가능성이 최초로 제기됨에 따라 17개 파노라마 지역에서 경관을 개선하고 기존 명소를 보완해야만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2873)

한줄 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2007년 하반기 관광사업 투자 규모를 20% 확대하기로 결정
·市 관광국은 투자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25만 개 창출 기대

- ‘2007 리우 판 아메리카 대회’ 관련 시설에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200만 리터 상당의 물 절약 기대

<브라질 쿠리치바市>

- 시립 식물원 내 문화공간에 180㎡ 규모의 ‘재활용주택 전시회’ 개최
·실내 장식물은 치약 튜브, 우유곽, 낡은 타이어 등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품으로 꾸며

- 4개 지역의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에 영화관을 설치해 영화를 무료 상영하는 ‘동네 영화관 프로그램’ 실시

24. 표지판과 경계물이 안전한 거리 조성에 부정적 영향 (영국)

- 영국 건축도시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는 거리의 표지판과 경계물이 오히려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함.
 - 건축도시환경위원회는 런던의 켄싱턴 거리, 리버풀의 호프거리 등 10개의 성공적인 가로 사례연구를 통해 정리한, 거리 디자인의 5가지 원칙을 발표함.
 - 비전(Vision): 가로 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조직적인 비전 제시
 - 지속적인 책임(Commitment):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하는 가로계획에 있어 지속적인 책임감
 - 종합적인 연계(Integration): 여러 가능한 보행방법 및 여행패턴과 연계된 가로 네트워크 구성
 - 환경에 순응(Adaptation): 기후변화와 문화적 변화에 순응하는 21세기형 거리 디자인
 - 일관성(Coherence): 조직력, 정치력, 기술력이 종합된 일관성 있는 디자인 해결책 제시

(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1484)

한줄 뉴스

- 파리市, 18~28세 젊은이에게 150유로(약 19만 원)씩 바캉스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리의 젊은 바캉스' 프로그램 실시
- 베를린市, 휴직·실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프로그램 실시
-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풍력발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풍력발전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국립공원 등에서의 입지기준 완화는 보류하기로 결정

25. 주택 마스터플랜 수립 (도쿄)

- 도쿄都는 주택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주택정책의 목표나 기본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쿄都 주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마스터플랜은 향후 10년간 주택시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춤.
 - 대지진이나 부실한 리모델링으로부터 주택 및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기 위한 ‘거주지의 안전·안심 확보’
 - 환경 부하의 저감 문제나 장래 인구감소 문제에 대비해 양질의 주택스톡(housingstock)을 형성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기 위한 ‘세대를 뛰어넘는 주택 마을 만들기’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7/03/70h3r400.htm)